

톡톡 튀는 새로운 판형의 책들, 눈에 띄네

신국판의 도열 속에 개성적인 크기로 내용 차별화

천편일률적인 판형의 책들이 꽃힌 지루한 서가에 독특한 판형으로 '튀는' 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책의 판형은 대개 4x6전지(788x1091mm)를 몇 등분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종이가 어정쩡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 책의 판형은 국판을 약간 변형한 신국판이나 오랜 전통의 문고본, 컴퓨터 서적이거나 미술도판 같은 경우 4x6배판, 국배판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담배갑 크기의 감쪽한 책부터 스케치북만한 책까지 평범하지 않은 판형의 책들이 애서가를 즐겁게 하고 있다.



담배갑 크기의 감쪽한 책부터 스케치북만한 책까지 독특한 판형의 책들이 서가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미지 편집을 위한 추세

요즘 대형서점에 가면 담배갑만한 크기의 책을 발견할 수 있다. 크기만 작다 뿐이지 펼쳐보면 국판형 책과 편집이나 글씨체, 제본방법이 같다. 법정 스님의 《산에는 꽃이 피네》(동쪽나라)가 그것.

원래부터 이런 주머니책으로 펴낸 것은 아니다. 처음에 소프트커버로 만들었다가 베스트셀러가 되자 같은 가격의 양장본을 펴냈는데, 뒤이어 '작은책'도 펴냈다. 짤막짤막한 잠언모음이라 아무데서나 잠깐씩 펼쳐보아도 된다는 책의 특성이 크기와 잘 맞았다. 현대지성사가 신국판 절반 크기로 만든 《안데르센 동화집》, 《이습우화》 등도 마찬가지다. 현암사의 《쉽게 찾는 우리 꽃》은 신국판을 세로로 잘라 길게 만들었는데, 산이나 들로 가지고 다니면서 꽃을 찾을 수 있도록 포터블한 장점을 살렸다.

이렇게 작은 책이 있는가 하면, 사계절에서 신문판형으로 낸 《역사신문》처럼 큰 책도 있다. 90년대 최대 베스트셀러 《죽머씨 이야기》의 삽화가 장 차크 상페의 《뉴욕 스케치》, 《속 깊은 이성친구》, 《라울 따뵐》(이상 열린책들)은 펜과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 넣은 스케치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크기다. 원서의 판형을 되도록 그대로 옮기자는 생각이었지만 모험을 싫어하는 출판계로서는 파격적인 시도다. 뜰에 맞추기보다 내용에 맞는 판형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다.

다양한 판형의 책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 속에 이미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신국판의 경우 한면에 10.5pt, 11pt 정도의

글자크기에 24행~30행 정도가 들어가는데, 텍스트만 있는 책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미지가 들어가는 경우 편집이 참 난감하다는 설명이다. 해설도판과 상징화로 짝 찬 문학동네의 《비밀언어》 시리즈가 대표적. 정사각형 모양의 변형 국배판으로 파격을 피했는데, 편집을 맡은 김은석씨는 "제작도 까다롭고, 종이도 낭비지만 많은 그림에 담긴 내용을 한페이지에 집중해 담으려면 당연한 판형"이라고 말한다.

외국책들이 다양하게 소개되는 것도 색다른 판형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비소설 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푸른숲의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은 외국책의 판형을 그대로 살린 경우다. 문고판보다는 크기만 신국판보다는 작고, 직사각형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황금비율을 비껴나가 신선감을 준다. 표지 역시 양장본도 소프트커버도 아닌 얇은 양장본으로 만들었다. 푸른숲의 한예원 편집장은 "한순에 잠긴다는 느낌을 살리고 싶었다"고 전한다. 새 판형의 인기가 좋아 《츠바이크의 발자크 평전》을 내면서 아예 규격화했다.

색다른 판형이 종이 낭비 등 제작비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시도해 본 출판사 대부분의 말이다. 열린책들의 김영준 편집장은 "제작비 때문에 특별히 곤란했던 적은 없었다"며 판형변화에 따른 제작비 손실은 관념상의 문제일 뿐, 약간의

종이낭비를 각오하더라도 책 내용에 걸맞은 편집이 우선이라고 본다.

다양한 종이규격과 인쇄 방식 개발돼야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파격적인 판형을 시도하기에 아직 우리의 제작역력은 단순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4x6판과 신국판, 국판 정도의 규격화된 종이 공급에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다. 종이규격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질 때, 실험적인 판형도 풍부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점에서는 관리하기에 불편하고 힘들어 독특한 판형의 책을 꺼린다. 일률적인 서가 높이와 매대의 진열방식에서 '튀는' 판형의 책을 처리하기란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매장 규모가 적은 소형서점에서는 큰 판형의 책을 갖다 놓기가 더 어렵다. 독자들도 보관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교보문고의 황정환 대리는 "분실 위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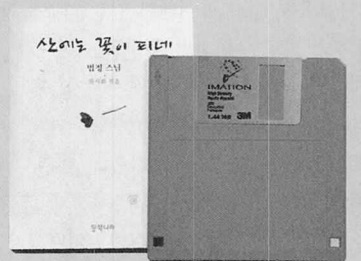
있는 작은 책은 카운터 옆에, 큰 책은 매대에 펼쳐 놓고 있는 형편"이라며 장기적으로 진열공간이나 서가문제 등 좀더 다양한 방식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제지업계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최근 보통 사용되는 4x6전지의 반절짜리 종이를 변규격에서 정규격으로 생산하는 등 종이 규격이 다양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출판계는 판형의 변화가 한글 서체나 편집 디자인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글이 알파벳에 비해 편집이 까다로운 편이라 새로운 판형에 어울리는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특한 판형을 시도했던 편집자는 "판형을 바꾸면서 편집의 여러가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목소리다. 책을 만들 때 내용에 어울리는 판형과 편집디자인은 어떤 걸까, 독자층은 어떤 감각을 원하나 스스로 되묻는 계기가 됐다. 동쪽나라의 송윤섭 편집장은 "판형의 변화뿐 아니라 독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책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하고 바랐다. — 이현주 기자

주머니판형책 잔잔한 인기

주머니에 속 들어가는 작은 판형의 책이 잔잔한 인기다. 지난 6월에 나와 지금까지 4만부가 팔린 《산에는 꽃이 피네》에 이어 《이습우화전집》, 《그림형제 선집》이 판매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손바닥만한 작은 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 엑슬리사의 《주고 싶은 책 갖고 싶은 책(To Give and To Keep)》, 판 앤런북스의 《펄리북스》도 역시만한 크기다.

이제까지 주머니판형 책은 대개 야유회 등에 가져가는 가요책이나 지루리 시간에 보는 사전 종류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 책은 작게 옮겨 놓았을 뿐, 내용은 큰 책과 똑같다. 《산에는 꽃이 피네》를 구입한 한 독자는 "버스 등 아무데서나 보기 편하고,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 좋다"고 말한다. 모양이 예뻐 젊은 아가씨들이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는데, 영풍문고의 한 직원은 "값이 싸다는 것도 구미를 당기는 것 같다"고 전한다. 보통 책값에서 적



게는 2천원, 많게는 3천원까지 값이 싸다는 것.

하지만 책을 편식화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주고 싶은 책 갖고 싶은 책》은 아예 '나의 특별한 사랑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등의 제목을 붙여놓아 책이라기보다 카드에 가깝다. 이습우화와 그림형제 동화집을 작은책으로 만든 현대지성사의 박명곤 사장은 "동화나 우화는 짤막하고 재미있어 잠깐씩 읽을 수 있다"며 내용과 형식의 어울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출판사들은 이제 작고 귀여운 판형만으로 눈길을 끌기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이현주>